

[심의 개요]

- 일시/장소 : 2017. 09. 25(월) 10:30~13:00,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
- 심의사항 : 2017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모니터링·평가 수행단체 심의(2건)
- 심의위원 : 염신규((사)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), 하현상(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), 정창호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 총괄)

[중점 심의 방향]

- 수행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행계획의 타당성, 수행과제의 이해도,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3개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다. 신청단체가 제시한 제안서 내용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수행단체의 전문성과 이해도, 사업계획의 준비성 등을 재확인 하였다.
- 제안서 검토는 ① 사업 이해와 성과 결과의 환류방식, ② 현장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, ③ 평가 수행방식 제시내용, ④ 지표체계의 합리성 확보 여부, ⑤ 사업계획의 이해도, 계획의 타당성, 구체성, 실현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평가하였다.
- 특히, 3개의 사업, 총 379개 지원사업을 평가해야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취지와 이해도, 용역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성 등은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다.

[전반적인 평가 (총평) 또는 사업개선방향 의견]

- 두 기관 모두 전문성, 수행능력은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이었으나, 평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차이, 사업수행의 타당도나 이해도 측면에서 볼 때 문화리서치 피오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.
- 심도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현장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Action plan과 확인사항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.
- 예술인력육성사업은 예술단체와 예술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평가 또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측정해야만 유의미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.

2017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모니터링·평가 수행단체 심의위원 일동